

# 레저 인구 증가·저유가... SUV, 올해도 잘 나간다

### 지난해 45만2200대 판매 ... 전년 대비 34% ↑

### 기아차 '니로', 쌍용차 '티볼리 에어' 이달 출시

### 벤츠·토요타·렉서스 등도 잇따라 새모델 내놔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와 저유가로 올해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SUV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SUV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UV는 전년 대비 33.9% 증가한 45만2200대가 판매됐다.

카니발 등 미니밴 판매까지 더하면 지난해 다목적형 차량(MPV)은 54만875대가 팔려 전체 판매 대수 중 41.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SUV를 구매한 셈이다.

SUV 인기 대체는 국내·외를 총망라한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승용차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SUV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SUV 판매 비중은 2011년 15.6%에서 지난해 22.9%까지 높아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올해 SUV 차종을 대표 라인업으로 선보이고 있다. 소형, 중형, 대형 SUV로 크기는 물론 엔진도 기존 디젤 중심에서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으로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차가 SUV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16일 출시한 8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더 뉴 모하비'는 하루 평균 250대 판매량을 보이며 40~50대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아차는 3월 친환경 전용 SUV인 '니로'를 선보이며 2년 연속 내수시장 50만대 판매에 도전한다.

지난해 소형 SUV '티볼리' 돌풍을 맞았던 쌍용차 역시 8일 티볼리 롱보디 모델인 '티볼리 에어'를 출시한다. 티볼리 에어는 다운사이징된 투싼·스포티지 1.7ℓ 모델과 정면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SUV 출시는 수입차업계에서도 이어진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독일 3사는 올해 1분기에 주요 SUV 모델을 잇따라 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를 'SUV의 해'로 정했다. SUV 판매 비중을 기존 10%에서 1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출시한 GLC, GLE 2종의 SUV 모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GLC의 경

우 1월 한 달간 619대를 판매하며 수입 베스트셀링 모델 2위에 올랐다.

BMW는 지난 26일 콤팩트 SUV X1의 2세대 완전변경 모델 '뉴 X1'을 출시했다. 아우디는 3월 10년 만에 완전변경한 Q7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른 수입브랜드들도 SUV 출시 경쟁에 뛰어 들었다.

푸조는 지난 1월 세단과 SUV 중간 형태의 '뉴 508 RXH'를 출시했다. 렉서스는 지난 17일 신형 RX를 국내 시장에 내놨다. 렉서스는 올해 자동차업계 키워드인 친환경과 SUV를 반영해 하이브리드 SUV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3월에도 잇따라 SUV 출시가 기다리고 있다. 3일에는 볼보가 XC90을, 8일에는 토요타가 RAV4, 24일에는 피아트가 500X 등 다양한 차급의 SUV가 출시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국산 SUV 중고차 시장

### '카니발'이 제일 잘 나가

#### 대체 모델 없어 인기 ... 2위는 쏘렌토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차량은 기아차의 '올 뉴 카니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국내 최대 자동차 오픈마켓인 SK엔카닷컴에 따르면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국산 중고 SUV(RV·레저용 차량 포함)의 2015년식 시세와 감가율을 조사한 결과 올 뉴 카니발의 감가율이 8.3%로 가장 낮았다.

감가율은 신차 가격과 견준 중고차 값의 하락 비율을 뜻한다. 감가율이 낮을수록 중고차로 되팔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올 뉴 카니발은 국내에서 대체 모델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RV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올 뉴 카니발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판매가 빠르게 이뤄지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며 "수요가 높은 만큼 중고차 감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차의 '올 뉴 쏘렌토'가 9.5%로 2위를 차지하며 올 뉴 카니발과 함께 10% 미만의 낮은 감가율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1.2위를 동시에 차지해 중고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SUV가 높은 잔존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감가율에는 브랜드 이미지나 소비자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국산 SUV 시장에서 기아차가 다른 브랜드를 압도하는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3위는 감가율이 12.7%를 기록한 현대차의 '올 뉴 투싼 디젤 2.0 2WD 프리미엄'이 차지했고 4위에는 감가율이 12.8%를 기록한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2WD 엑스클루시브 스페셜'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베라크루즈는 단종됐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율이 낮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단종 이전에도 신차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베라크루즈는 기아차의 '모하비'와 함께 국산 대형 SUV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SK엔카는 "신차 시장에서 단종이 되면서 3천cc 디젤 SUV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중고차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점이 낮은 감가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라크루즈의 단종과 함께 생산 중단을 겪었던 모하비 역시 14.6%의 낮은 감가율을 기록하며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시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쌍용차의 판매 실적 개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티볼리'는 '디젤 LX'의 감가율이 17.8%로 8위에 올랐다.

SK엔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SUV를 구매할 때도 디자인이나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런 점들을 만족시키는 모델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져 낮은 감가율을 기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UV 시장 주도권 잡아라"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와 저유가로 올해도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잘 나가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 할 것 없이 SUV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SUV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기아차가 최근 선보인 친환경 전용 SUV인 '니로'(왼쪽)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1월 출시한 벤츠 'GLS 63 4MATIC'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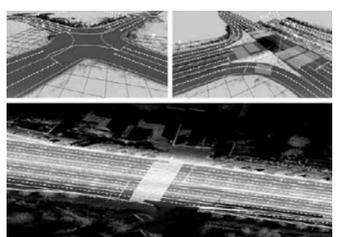
## 자율주행차 시대 '정밀도로지도' 나왔다

### 국토부 무료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열기 위해 제작된 '정밀도로지도'가 지난 29일부터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이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제작했다.

이 지도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선(규제선·도로경계선·정지선·차로중심선), 도로시설(중앙분리대·터널·교량·지하차도),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신호기) 정보를 정확도



25cm 규모로 만든 전자지도이다.

구글이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최근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노키아의 지도서비스 '히어(Here)'를

인수한 사례에서 보듯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해 이번 정밀도로지도도 시범제작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범위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고속도로 1개 구간(42km), 일반국도 3개 구간(186km)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주행시험로(13km)이다. 미 구축된 일반도로 2개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정밀도로지도도 무료로 배포해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도 활발히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용성 평가 등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정밀도로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벤츠, 상용차 전 차종

### 무상점검·부품 할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2016 새봄맞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에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봄철 고객이 많이 찾는 부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패드 패키지, 에어컨 필터 대상 등 '추천 패키지' 또는 총 86개 대상 부품 중 고객이 필요한 부품을 직접 선택해 정비를 받는 '맞춤형 패키지'를 구입하거나 정비를 받을 경우 구성 부품에 따라 최대 30% 할인과 공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